

결혼 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가 부부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엄동춘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Effects on Couples' Communication, Intimacy,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by Foot Massage between Immigrants

Uhm, Dong-cho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n immigrant couples' communication, intimacy,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when using foot massage. **Methods:** The research design consisted of pre-and-post test consecutive experimental design throug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July 6, 2009 to February 27, 2010. The 36 coupl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xperimental and control with 18 couples in each group. Foot massage was applied twice a week for 6 weeks by the couple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communication ($p=.011$), intimacy ($p<.001$), quality of life ($p=.017$) between the couples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conflict ($p=.003$) between the couples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Foot massage can be applied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in immigrant couples.

Key words: Massage, Communication, Intimacy, Conflict, Quality of Lif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특정 종교단체에서 한국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이 추진되면서 결혼 이주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농촌총각의 신붓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 외국여성과 한국남성과의 혼인은 매년 증가하여 2000년도 총 혼인건수의 2.1%, 2008년에는 9.1%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이들의 결혼은 결혼중매업체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친인척 등을 통해 현지에서 한두 번의 맞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서로를 알 수 있는 기간이 생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마저 다른 상황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긴밀한 인간관계로서 각자의 성장 배경과 인성적인 특성이 다른 부부가 신체적, 정신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화나 갈등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Lee 1995). 특히, 결혼이민자 부부는 완전히 다른 언어와 사회문화

주요어 : 발마사지,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삶의 질

*본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09-0074725).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No. 2009-0074725).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Uhm, Dong-choon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Daejeon University, 96-3 Yongun-dong, Dong-gu, Daejeon 300-716, Korea
Tel: 82-42-280-2941 Fax: 82-42-280-2946 E-mail: dchuhm@dju.kr

투고일 : 2010년 4월 28일 심사위원회 : 2010년 5월 3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9일

적인 차이로 인해 부부 간 암묵적인 합의와 동의가 내국인 부부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쉽게 갈등이 누적되거나 잦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며, 심하면 신체적인 폭력으로 진행된다 (Byun, Lee, Kim, Hwang, & Lee, 2008). 결혼 이민자 부부는 서로 다른 언어의 사용으로 내국인 부부와 다르게 상호간의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부부 간의 소통을 위한 다른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혼생활은 부부 간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 분노, 말다툼 등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질환, 빈혈,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해체가 발생한다 (Youn, 2009). 우리나라 이혼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간의 이혼은 2002년도 전체 이혼 건수의 0.3%에서 2008년도에는 6.8%로 20배 이상 증가하여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자 여성과의 결혼해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부부가 국내의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단체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해왔으며, 결혼이민자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 허용에 어려움이 있어 일회성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활동교육 보다는 강의식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Byun et al., 2008).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부부가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빠르게 안정적인 가정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부부 간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친밀감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은 가장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어 부인과 자녀들은 그에 대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주로 부인이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민주주의의 발달과 양성평등 사상에 의해 남편과 부인의 관계 인식 변화로 부부 간의 갈등 해결 방식도 배우자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갈등을 해결하

려고 하는 노력이 증가(Kwak, 2002)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쌍방향적인 상호관계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사소한 오해로 시작되지만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발생하고 친밀감이 상실되고 심각한 경우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등이 (Byun et al., 2008; Lee, 1995) 발생하여 부부 간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 교류를 더 어렵게 한다 (Kim, 2006). 또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적응 및 관계만족을 포함하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Segrin, 2005).

신체적인 접촉과 얼굴표정 및 눈 맞춤 등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람들에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같이 단어로서 사용되며, 신체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될 뿐 아니라 신체적, 감정적 편안함과 영적 교감을 이루게 되며 사회적 역할수행도 잘하게 된다 (Chang, 2001; Kong, 2009). 그러므로 언어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결혼 이민자 부부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Kwak (2002)은 내국인 부인이 남편에게 발마사지를 시행한 후 부인의 관점에서 부부 간의 의사소통, 친밀감이 유의하게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부부가 서로에게 신체적인 접촉의 하나인 발마사지를 해줌으로써 부부 간의 의사소통, 갈등, 친밀감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 사회적 여건상 앞으로도 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적 결혼은 증가할 것이다. 현재 간호사들은 임상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부부를 흔하게 만나고 있으나 간호학적인 측면에서 이들 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의 하나인 발마사지 중재가 부부 간의 의사소통, 갈등, 친밀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발마사지를 결혼이민자 부부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방안의 하나로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가 친밀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결혼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가 갈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넷째, 결혼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발마사지 중재를 시행하는 결혼이민자 부부와 시행하지 않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및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 유사 실험설계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로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국적은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0.1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0.5, 검정력 0.8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각 군에 51명이었다. 본 연구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탈락률과 연구 대상자 참여도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광역시 거주 결혼이민자 부부 28명(14쌍)과 광역시 이외 거주 결혼 이민자 부부 28명(14쌍)으로 각 군에 56명(28쌍)을 편의 표출하였다. 거주 지역을 고려한 것은 Youn (2009)의 연구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부부갈등,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 근거하였다. 실험 기간 중 결혼이민자 부인의 친정방문(5쌍)과 가족의 질병(5쌍) 및 농번기와 남편들의 직장문제(11쌍), 개인적인 문제(3쌍)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최종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36명(18쌍)씩 총 72명(36쌍)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 발마사지 실험 중재

발마사지용 오일을 사용하여 마사지의 기본 이완기법을 시행하였다. 발마사지는 준비단계, 이완마사지,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발마사지 소요시간은 1인당 30-35분 정도로 부부가 모두 발마사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0-70분이다. 준비단계에서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앉은 후 부인을 양와위로 눕도록 한 후 남편이 양말을 벗기고 소독수를 사용하여 부인의 발

가락 사이사이와 자신의 손을 소독한다. 남편은 부인의 왼쪽 발에 양손을 이용하여 발등누르기와 발목 찢히기를 각각 5회 시행한 후 동일한 방법을 오른쪽 발에 시행하였다. 이완 마사지 단계에서 남편은 부인의 왼쪽 무릎 위 10 cm까지 마사지용 오일을 도포한 후 양손을 맞잡고 발등, 발바닥, 발의 내측과 외측, 발목 및 무릎까지 경찰법, 마찰법, 압박, 유날법 등으로 5번씩 반복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다리에도 이완마사지를 시행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양말을 신기 도록한 후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 앉게 하여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남편과 부인의 자리를 바꾸어 똑같은 방법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발마사지를 하였다. 결혼 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는 D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발반사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한 4명의 연구보조원이 2인 1조로 결혼 이민자 부부 2쌍 사이에서 2명의 연구 보조원이 짝을 이루어 발마사지 시범을 보이면서 결혼 이민자 부부에게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였다. 발마사지 중재 횟수는 본 연구자(Uhm, 2004)의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주 2회씩 6주간 12회 실시하였다.

4. 연구 도구

1) 의사소통

부부의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 (2006)이 Bienvenu (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주었으며, 측정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6$, 본 연구에서는 3번의 측정시기 동안 Cronbach's $\alpha=.85$ 에서 .86이었다.

2) 친밀감

Lee (1995)가 개발한 부부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친밀감 5문항, 정서적 친밀감 5문항, 성적 친밀감 5문항'의 3개 하부요인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따라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정말 그렇다'는 5점을 주었으며, 3개의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0$, 본 연구에서는 3번의 측정시기동안 Cronbach's $\alpha=.87$ 에서 .89이었다.

3) 갈등

Kim (2006)이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로 '개인적 영역 3문항, 부부관계 영역 3문항, 공동생활영역 3문항, 제삼자 영역 3문항'의 4개 하부요인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현재 부부생활에서 부부가 느끼는 갈등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주었으며,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9$, 본 연구에서는 3번의 측정시기 동안 Cronbach's $\alpha=.89$ 에서 .90이었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Min, Kim과 Park (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BRE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적인 삶의 질 2문항, 사회적 관계 3문항, 신체적 건강 7문항, 생활환경 8문항, 심리적 건강 6문항'의 5개 하부요인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나쁘다'는 1점을 '매우 좋다'는 5점을 주었으며 3개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26점에서 1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8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에서 .92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실험군은 일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에 위치한 3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의 이해, 한국음식 배우기, 아버지교실과 같은 4-8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부인이나 남편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현장에서 참여를 희망한 사람에 한 하여 각자 집에 가서 남편과 부인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를 결정한 56명(2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기간 중 탈락자가 발생하여 3차에 걸쳐 연구 대상자 집단을 모집하였으며, 실험군의 전체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실험군 중 광역시 거주자 2명(1쌍)과 광역시 이외의 거주자 18명(9쌍)이 중간에 탈락하여 최종 36명(18쌍)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조군의 자료수집도 실험군과 동일한 장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실험효과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후시차 유사 실험설계를 하였다. 그러므로 실험군에 참여한 대상자가 참여했던 교육프로그

램이 종료된 후 실험군에 참여한 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결혼이민자 부부를 모집하여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Youn (2009)의 결과에 따라 실험군 내 결혼이민자 여성의 국적과 거주지를 짝 맞추기로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에서 각각 28명(14쌍)을 편의 표출하였다. 그러나 광역시 거주자 14명(7쌍)과 광역시 이외의 거주자 6명(3쌍)이 탈락하여 최종 36명(18쌍)에서 대조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결혼이민자 부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책임자와 면담을 통하여 실험처치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으나 설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하도록 돕기 위해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통 번역사 중 본 연구의 결혼이민자 여성과 같은 국적의 통 번역사에게 설문지를 읽어주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동원된 통 번역사는 자국(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였으며,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4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한국외국어 대학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결혼이민자 부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자들이다. 자료 수집 절차는 먼저 실험군 사전조사(1)-실험중재(3주)-사후조사(2)-실험중재(3주)-사후조사(3) 순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후 대조군 사전조사(1')-3주 후-사후조사(2')-3주 후-사후조사(3') 등 3번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는 연구 종료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본 연구자 소속 부속병원의 임상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임상연구계획서 승인(djomc-41)을 받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 일 광역시와 군 소재 3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부인과 남편 각각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로 동의한 부부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내용이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친밀감 및 갈등을 묻는 문항으로 부부간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남편과 부인은 각기 다른 방에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지를 수거한 즉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실로 옮겨 보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그 도구를 개발하거나 한국어판으로 수정 보완한 저자들에게(Kim, 2006; Lee, 1995; Min et al., 2002) 사용허락을 받았다.

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 test 검정하였다.

셋째, 종속변수의 사전 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남편과 부인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Mann-Whitney U test, 실험군과 대조군 부부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Kolmogorov-Smirnov test를 실시한 후 정규성이 확보되어 t-test 하였다.

넷째, 발마사지 중재 후 시기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삶의 질은 Repeated measured ANOVA로 검정하였다.

다섯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실험군 26세 미만(66.7%), 대조군 26세 이상(61.1%), 남편은 각 군에서 26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군의 결혼 이민자 여성의 교육 수준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하였으며, 남편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많았다. 결혼이민자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이 각 군에 12명(66.7%)이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실험군 9쌍(50.0%), 대조군은 13쌍(72.2%)이 이백만 원 미만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가정이 두 군에서 8쌍이었다. 거주 지역은 실험군은 광역시(13쌍, 72.2%)에 대조군은 광역시 이외의 지역(11쌍, 61.1%)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부인의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가정이 두 군 모두 8쌍(44.4%)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거주지($p=.004$), 남편교육수준($p=.040$) 이외에 남편연령($p=1.000$), 부인연령($p=.095$), 부인교육 수준($p=1.000$), 국적($p=1.000$), 가구당 월 평균 수입($p=.171$), 자녀 수($p=1.000$) 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

1. 사전 동질성 검정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Table 1과 같다. 결혼이민자 부인의 연령은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발마사지 중재 전 결혼이민자 부부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및 삶의 질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남편-남편, 부인-부인의 동질성 검정은 Mann-Whitney U test로 하였으며,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Homogeneity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N=72)

Characteristics/categories			Exp (n=36) n (%)	Con (n=36) n (%)	χ^2	p
Age (yr)	Husband	<26	0 (0.0)	0 (0.0)	0.00	1.000
		≥26	18 (100.0)	18 (100.0)		
	Wife	<26	12 (66.7)	7 (38.9)	2.78	.095
		≥26	6 (33.3)	11 (61.1)		
Level of education	Husband	<College	8 (44.4)	14 (77.8)	4.20	.040
		≥ College	10 (55.6)	4 (22.2)		
	Wife	<College	13 (72.2)	13 (72.2)	0.00	1.000
		≥ College	5 (27.8)	5 (27.8)		
Wives' nationality (each group n=18)	Vietnam	12 (66.7)	12 (66.7)		0.00	1.000
	Others	6 (33.3)	6 (33.3)			
Monthly income (thousand won, each group n=18)		<2,000	9 (50.0)	13 (72.2)	1.87	.171
		≥2,000	9 (50.0)	5 (27.8)		
Children		0	8 (44.4)	8 (44.4)	0.00	1.000
		≥ 1	10 (55.6)	10 (55.6)		
Residence	City	13 (72.2)	7 (38.9)		4.05	.044
	Suburbs	5 (27.8)	11 (61.1)			
Economic aid for wife's parents	Yes	8 (44.4)	8 (44.4)		0.00	1.000
	No	10 (55.6)	10 (55.6)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3. 발마사지 중재 효과

1)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효과

결혼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 중재 효과를 비교한 결과 (Table 3) 실험군의 의사소통점수는 중재 시기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2.19$, $p=.143$) 간 차이는 없고 시점($F=3.78$, $p=.037$),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9.45$,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은 실험군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같은 시점에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8.23$, $p=.005$) 간 차이는 있고 시점($F=3.29$, $p=.054$) 간 차이는 없었으나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14.16$,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은 실험군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같은 시점에서 약 4배 정도 감소하였으며,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56$, $p=.456$)과 시점($F=3.24$, $p=.053$) 간 차이는 없고,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6.82$, $p=.003$)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실험군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같은 시점에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2.17$, $p=.145$)과 시점($F=.37$, $p=.685$)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4.20$, $p=.017$)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민자 남편-남편 간의 효과

실험군과 대조군 남편-남편의 발마사지 중재 효과는 Table 4와 같다. 실험군의 의사소통은 중재 시기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02$, $p=.876$) 간 차이는 없었으나 시점($F=3.41$, $p=.039$),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3.18$, $p=.047$)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친밀감 점수는 중재 시기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감소하였다. 친밀감에 대한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18$, $p=.674$)과 시점($F=.70$, $p=.475$) 간 차이는 없었으나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5.87$, $p=.009$)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에서 실험군은 중재 시기에 따라 낮아졌으며, 대조군에서는 3주 후 점수가 6주 후보다 증가하였다. 갈등에 대한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29$, $p=.593$)과 시점($F=.29$, $p=.696$) 및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1.57$, $p=.219$)

Table 2. Homogeneity for Dependent Variables

(N=72)

Variables	Husband		U (p)	Wife		U (p)	Total		t (p)
	Exp (n=18)	Con (n=18)		Exp (n=18)	Con (n=18)		Exp (n=36)	Con (n=36)	
	M±SD	M±SD		M±SD	M±SD		M±SD	M±SD	
Communication	21.56±2.96	22.78±3.64	130.50 (.316)	20.06±6.16	20.06±6.36	159.50 (.937)	20.81±4.82	21.42±5.29	-0.512 (.610)
Intimacy	56.78±5.11	58.44±6.17	136.50 (.419)	53.44±10.27	49.67±13.61	134.50 (.384)	55.11±8.17	54.06±11.33	0.454 (.652)
Conflict	24.50±7.60	23.78±7.82	153.50 (.788)	28.83±10.62	25.78±10.00	136.50 (.419)	26.67±9.37	24.78±8.91	0.877 (.408)
Quality of life	85.17±12.95	85.83±7.02	152.00 (.751)	90.67±14.54	88.78±15.61	149.50 (.692)	87.92±13.85	87.31±12.02	0.200 (.842)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Communication, Intimacy,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between Groups

(N=72)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Source	F	p
		M±SD	M±SD	M±SD			
Communication	Exp (n=36)	20.81±4.82	23.28±3.99	23.3±33.40	Group	2.19	.143
	Con (n=36)	21.42±5.28	20.53±4.95	21.11±5.10	Time	3.78	.037
Intimacy	Exp (n=36)	55.11±8.16	60.06±7.13	60.31±6.15	GxT	9.45	.001
	Con (n=36)	54.06±11.32	53.0±11.08	51.19±10.44	Group	8.23	.005
Conflict	Exp (n=36)	26.67±9.36	22.75±7.94	22.22±8.20	Time	3.29	.054
	Con (n=36)	24.78±8.90	25.78±10.60	25.42±8.92	GxT	14.16	<.001
Quality of life	Exp (n=36)	87.92±13.85	88.78±11.30	90.42±12.76	Group	0.56	.456
	Con (n=36)	87.31±12.01	84.61±13.65	83.31±12.12	Time	3.24	.053
					GxT	6.82	.003
					Group	2.17	.145
					Time	0.37	.685
					GxT	4.20	.017

Post-test 1: Post test at 3 weeks; Post-test 2: Post test at 6 weeks.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의 삶의 질 점수는 중재 시기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점점 감소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1.46$, $p=.235$)과 시점($F=.25$, $p=.777$) 간의 차이는 없고,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6.07$, $p=.004$)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결혼이민자 부인-부인 간의 효과

실험군과 대조군 부인-부인의 발마사지 중재 효과는 Table 5와 같다. 실험군의 의사소통은 중재 3주 후 점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시기에 따라 감소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3.70$, $p=.063$)과 시점($F=2.67$, $p=.096$) 간 차이는 없고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7.16$, $p=.0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군의 친

밀감은 중재 3주 후 점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6주 후 점수가 중재 전보다 더 낮았다. 친밀감에 대한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8.94$, $p=.005$)과 시점($F=7.35$, $p=.003$) 및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10.03$,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군의 갈등점수는 중재 시기에 따라 점차 낮아졌으나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다. 갈등에 대한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26$, $p=.611$) 간의 차이는 없고 시점($F=6.18$, $p=.003$),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5.98$, $p=.004$)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삶의 질에 대한 실험군 점수는 중재 시기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군은 감소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Repeated measured ANOVA 결과 두 집단($F=.83$, $p=.366$)과 시점($F=.26$, $p=.772$) 및 그룹과 시점 간 교호 작용($F=.47$, $p=.626$)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Comparison of Communication, Intimacy,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for Husbands

(N=36)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Source	F	p
		M±SD	M±SD	M±SD			
Communication	Exp (n=18)	21.56±2.95	22.67±3.33	23.06±3.05	Group	0.02	.876
	Con (n=18)	22.78±3.63	21.78±4.36	23.22±3.39	Time	3.41	.039
Intimacy	Exp (n=18)	56.78±5.10	58.56±7.36	60.28±5.90	GxT	3.18	.047
	Con (n=18)	58.44±6.16	56.22±10.61	54.78±8.80	Group	0.18	.674
Conflict	Exp (n=18)	24.50±7.60	23.56±6.27	22.67±7.07	Time	0.70	.475
	Con (n=18)	23.78±7.81	25.78±10.56	25.17±9.07	GxT	5.87	.009
Quality of life	Exp (n=18)	85.17±12.94	86.22±9.49	90.00±14.19	Group	0.29	.593
	Con (n=18)	85.83±7.01	82.72±12.85	80.39±10.94	Time	0.29	.696
					GxT	1.57	.219

Post-test 1: Post test at 3 weeks; Post-test 2: Post test at 6 weeks.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 of Communication, Intimacy,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for Wives

(N=36)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Source	F	p
		M±SD	M±SD	M±SD			
Communication	Exp (n=18)	20.06±6.15	23.89±4.57	23.61±3.66	Group	3.70	.063
	Con (n=18)	20.06±6.35	19.28±5.30	19.00±5.72	Time	2.67	.096
Intimacy	Exp (n=18)	53.44±10.26	61.56±6.75	60.33±6.57	GxT	7.16	.005
	Con (n=18)	49.67±13.61	49.89±10.89	47.61±10.94	Group	8.94	.005
Conflict	Exp (n=18)	28.83±10.62	21.94±9.43	21.78±9.38	Time	7.35	.003
	Con (n=18)	25.78±10.00	25.78±10.93	25.67±9.02	GxT	10.03	.001
Quality of life	Exp (n=18)	90.67±14.54	91.33±12.67	90.83±11.55	Group	0.26	.611
	Con (n=18)	88.78±15.60	86.50±14.52	86.22±12.84	Time	6.18	.003
					GxT	5.98	.004

Post-test 1: Post test at 3 weeks; Post-test 2: Post test at 6 weeks.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Youn, 2009) 결과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와 부인의 국적을 짝 맞추기로 편의 표출하였으나 실험군에서 광역시 이외의 거주자 9쌍 중 2쌍의 부인은 친정방문으로 7쌍은 자료 수집 기간이 가을 추수시기로 6주간의 실험중재에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워 탈락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에서 최종적으로 자료 수집한 대상자의 거주지와 국적에 맞추어 선정하였으나 광역시 거주자 7쌍 중 4쌍은 남편의 직장문제(잔업수당을 받기 위해 야간 일을 함), 나머지 3쌍은 부인의 친정방문과 질병발생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탈락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거주지를 맞추기 위해 광역시 거주자 10쌍을 추가로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자신의 가정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6주간 3회의 자료 수집 참여를 거부하여 연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와 남편의 교육수준에 대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각 군의 남편 연령은 모두 26세 이상이고 부인은 26세 미만이 실험군 66.7%, 대조군 38.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6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부부 간의 정확한 나이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남편과 부인 간의 나이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두 군에서 모두 50% 이상이 200만 원 미만으로 우리나라 실질 월평균 가구소득인 3,369,673원(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보다 적었으며,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결혼 이민자 가정의 60%가 월평균 소득이 140만 원으로 보고한 Youn (2009)의 연구 결과와 같다. 이것은 국내에서 결혼성립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남성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남아 지역의 여성과 결혼이 쉽게 성사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Hong & Chae, 2007). 교육수준은 실험군 남성의 55.6%가 (전문)대학교 이상의 졸업자로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차이(Na et al., 2007)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일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 거주자가 대상이므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두 군 모두 44.4%의 남편이 월평균 수입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Woelz-Stirling, Manderson, Kelaher와 Gorden (2000)은 필리핀에서 호주로 결혼 이주한 부인의 결혼조건이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필리핀 등에서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Shin과 Yang (2006)이 필리핀 이주여성과 이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결혼의 조건이 친정에 경제

적인 원조를 해주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므로써 부부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국적의 이민자 여성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남편에게서 얻은 자료만을 분석한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와 금액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문화와 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시에 남편이나 가족들과의 대화도 기피하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의 결핍으로 불만과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이 심화되어 가정의 안정과 결혼 생활 만족이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yun et al., 2008; Hong & Chae, 2007). 또한, 결혼 이민자 부부 모두는 안정적인 부부관계유지와 가족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어 교육(Byun et al., 2008)이며, 실제로 부인은 빠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부부 간의 긍정적인 관계성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나 Song (2008)이 1주 2회 3시간씩 1년간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듯이 결혼 이민자 부인이 남편과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 이민자 여성의 빠른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관계로 부부친밀감 유지와 부부 갈등 해소를 위해 다른 비언어적인 학습이 또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발마사지 중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험군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Kim과 Lee (2008)는 결혼이민자 남편만을 대상으로 120분씩 1주 1회 5주간 다문화 가족의 이해, 아내나라 문화체험,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 등을 주제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적용 후 부부의 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다($p=.049$)는 결과가 뒷받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실험중재인 부부 간의 발마사지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은 부부 간의 정상적인 행동으로 서로 접촉하는 몸속에서 공동의 의미를 교감(Kong, 2009)하였기 때문에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조군에서 부인보다 남편의 의사소통 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 것은 결혼 이민자 남편이 부인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마사지 중재 후 부부 간의 친밀감 점수는 남편보다 부인의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Han & Shin, 2007) 부인은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

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Yoon & Shin, 2009), 부부 간의 가장 긍정적인 정서는 부부친밀감으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심리적 부적응,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장애가 유발될 뿐 아니라 부부 간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ecolt-Glaser & Robes, 2003).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로 부부 간 발마사지가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결혼이민자 부부의 친밀감 향상을 위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발마사지 중재가 부부갈등에서 두 군의 남편과 부인, 부인과 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남편과 남편($p=.219$)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Kim 등(2008)이 결혼이민자 남편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적용 후 남편의 갈등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것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욕구가 크기 때문에(Han & Shin, 2007)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발마사지와 같은 신체접촉 중재로 부부갈등 변화를 측정할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심각한 결손이 있는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20-30회 아이에게 마사지를 통한 신체적 접촉 후 아이 양육에 대한 갈등이 감소되고 친밀감과 부모-아동 상호 작용 및 아이와의 의사소통이 증진되었다(Field, Singer-Struck, Cullen, & Hartshorn, 2001; Kim, 2007)는 결과에 근거하여 실험군 남편의 갈등점수가 시기에 따라 감소하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 12회 이상의 중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갈등이란 집단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여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촉진시킨다(Kammrath & Dweck, 2010)고 하였으나, 넓은 의미에서 가족관계의 갈등은 이익이 상충하는 가족 간의 서로 다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출발은 각자 다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가족 구성원 서로의 욕구에 맞도록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부부 갈등이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Cho, 2000). 삶의 질에서 남편-남편($p=.004$)과 부인-남편($p=.017$)과 다르게 부인-부인($p=.626$)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부 간의 발마사지가 실험군 부인보다는 남편의 삶의 질을 월등히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두 군에서 중재 전 부인의 삶의 질 점수가 남편의 것보다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국의 생활환경보다 좋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Youn (2009)의 연구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부인의 삶의 질이 농촌거주자와

내국인의 삶의 질보다 유의하게 높게($p<.01$)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중재 전 실험군 부인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은 실험군 대상자의 거주지가 대조군에 비해 광역시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추후 연구에서 거주지별 삶의 질 차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부부 상호간에 발마사지를 시행한 후 부부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및 삶의 질 등의 효과를 측정한 첫 간호학적 연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부부가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과 실험중재를 통해 부부의 의사소통과 친밀감 및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고, 갈등이 감소된 것은 지역사회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결혼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발마사지가 유용한 간호중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짝짓기 편의표출과 전후시차 연구 설계 및 사전 동질성 검정으로 중재효과를 객관화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개인의 일상사건이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와 군에 위치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 무리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부부 간의 발마사지 중재가 부부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 유사 실험설계이다. 본 연구 결과 12회의 발마사지 중재로 결혼이민자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친밀감 및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고 갈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로 발마사지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국적별, 거주지별에 따라 12회 이상의 발마사지 중재 후 갈등과 삶의 질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부부의 남편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결혼이민자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삶의 질 모형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Byun, W. S., Lee, M. J., Kim, H. Y., Hwang, J. M., & Lee, S. H. (2008).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s and support enhancement, 2008 Research Report-4*.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ang, S. O. (2001). The conceptual structure of physical touch in car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3, 820-827.
- Cho, Y. R. (2000). *Marital conflicts,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Field, T., Singer-Struck, R., Cullen, C., & Hartshorn, K. (2001). Improvements in the behavior of children with autism following massage therapy.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s*, 31, 513-516.
- Han, S. Y., & Shin, H. C. (2007). Multi-group factor analysis and latent means analysi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scale for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 447-465.
- Hong, D. A. G., & Chae, O. H. (2007). The values, communication type and conflict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 733-744.
- Kammrath, L. K., & Dweck, C. (2010). Voicing conflict: Preferred conflict strategies among incremental and entity theor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497-1508.
- Kiecolt-Glaser, J. K., & Robes, T. F. (2003). The physiology of marriage: Pathway to health. *Physiology and Behavior*, 79, 409-416.
- Kim, J. S. (2007). *A case study on interaction between autistic children and mothers through mass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O. N.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18, 63-106.
- Kim, O. N., Kim, K. S., & Lee, J. H. (2008). A study on 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program for immigrant women's husban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3), 69-84.
- Kong, B. H. (2009).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body and the experience of illness in nursing.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Research*, 40, 57-81.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November). *Annual report on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1997-2007)*. from http://www.kosis.kr/online/on00_index.jsp
- Kwak, K. H.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foot reflexology to the enrichment of marital intimacy on wife's percep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Lee, K. H. (1995). A measure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 235-249.
- Min, S. K., Kim, K. I., & Park, I. H. (2002). *Korean version of WHO-QO*. Seoul: Hana Medical Press.
- Na, S. I., Jyung, C. Y., Gu, J. O., Park, H. M., Chang, H. S., Kim, J. G., et al. (2007). Exploring action plan for the education innovation by types of rural areas for releasing education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9, 37-54.
- Segrin, C. (2005). Communication and the study of personal well-be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Communication Studies*, 67, 547-549.
- Shin, G. H., & Yang, S. E. (2006). Marital conflicts of international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5), 1-8.
- Song, B. H. (2008). *The effects of Korean and family life education for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focused on the Iksan transnational marriages and family support center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Uhm, D. C. (2004). Effects of foot reflexo-massage on physical, psychological, physiological parameters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6, 276-287.
- Woelz-Stirling, N., Manderson, L., Kelaher, M., & Gorden, S. (2000).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Filipian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791-805.
- Yoon, M. H., & Shin, H. C. (2009). Process model of marital intimacy on sharing daily events: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 17-23.
- Youn, H. (2009). *Study on mental health of the Vietnamese female marriage migrants: Focused on urban-rural differ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